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0. Vol. 10. No.2, pp. 25~46

## 일반아동과 영재아동의 언어적 특성 비교

장 혜 자(충북대)  
 김 혜 옥(서울신학대)  
 윤 현 선(안산전문대)  
 조 복 희(경희대)

### 요 약

본 연구는 아동의 작가적 재능 수행평가를 사용하여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적 특성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내용은 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사고능력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현실적 추론 사고능력의 차이를 볼 것이다 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있는 C 영재학술원에 다니는 초등1학년 아동 3명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초등 1학년 아동 3명을 선정하였다. 1999년 6월 3일부터 12일 까지 대상아동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녹취 및 기록하였다. 연구도구는 언어적 재능 확인 평가도구(Project Spectrum; Krechevsky, 1994)로 하버드대학 Project Zero팀이 1983년에서 1994년에 걸쳐 개발한 작가적 수행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산출, 평균 및 표준편차값을 구하였다.

결론을 보면 첫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작가적 재능 수행평가를 시행한 결과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둘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게 현실적 동화와 비현실적 동화를 들려주어 심미적 질문과 정보회상 질문을 한 결과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확산적 사고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대화체 사용 및 시간적 차원에서의 표현력에서는 영재아동, 일반아동 모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요어: 언어영재, 언어적 특성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의 과밀화와 이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양태는 한정된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사회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는 다양한 산업화의 추진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이전 인문사회 분야의 발달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을 꾀하는 두뇌개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인력 개발보다 영재성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토가 좁아 물리적 환경의 발달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나라발전에 힘써 나가야 한다. 이는 경제와는 달리 우수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두뇌개발로 인한 주요 정보 사회를 발달 시켜야 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에게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킨다는 것과 치열한 국제 두뇌 경쟁속에서 승리와 인력 개발을 위한 복잡한 산업사회 속에서 영재 발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영재교육의 연구는 1900년 초부터 시작되었고 1957년 10월 소련의 스프트니크의 발사로 인하여 급격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나름대로의 과학,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고급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재아의 발견과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내 영재아동의 연구는 과학, 수학 영재들의 판별과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Marland(1972)는 영재아동들에게는 일반아동들과 다른 영재들만의 특성이 있으며 그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킬 특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조석희, 1986 재인용). 이러한 관념에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재들의 선별 방법 및 특성,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영재성에 관한 여러 정의에서 하워드 가드너의 중다지능이론에 의하면 영재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7가지 분야로 언어적 영재성, 수·논리영재성, 사회적 영재성, 미술, 음악, 운동 분야의 영재성, 창의성 영재성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다(박경숙외, 1996). 지금까지는 국가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수학, 과학 영재를 길러내는 일에 역점을 두는 교육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언어적 영재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언어 영재를 양성하는데도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나 경제·사회활동을 보면 세계 각 영역의 대표 및 주자가 설득력있는 주장 및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면서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관철시키려 노력한다. 이는 결과를 예견하기 전 그들의 다양한 언어구사 및 원고를 통한 주장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국가발전에 있어서도 이제는 언어적 영재성을 키워 나가 세계적인 시장에서 당당히 그

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어깨를 나란히 겨누기 위해서 언어적 능력의 발휘는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언어 능력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나뉜다. 언어 능력은 지능검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모든 사회활동과 학문적 활동에서의 성공여부를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아이를 작가로 키우려 하지 않아도 언어 능력을 계발시켜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아동이나 영재아동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여 좀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영재가 나이가 들수록 특정 영역에 한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각 분야별로 영재성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영재아동의 언어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아동의 작가적 재능 수행평가를 사용해 그들의 사고능력을 비교 및 분석을 하고, 그들의 비현실적 추론 사고 능력의 차이를 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언어영재성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과 특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쓰고자 하며, 나아가 일반아동들도 언어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도모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사고능력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 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현실적 추론 사고능력의 차이를 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의 언어적 특성

#### 가. 아동의 언어

언어는 모든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생활속에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정보, 가치, 이해, 태도들을 배우게 된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직접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과 사물세계에 대한 이름을 변별하고 분류하는 등 다양한 사고 활동을 한다(이 경우, 1998). 그리고 언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서 언어에 대해 특별

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생활해 나간다.

아동은 가장 귀중한 학습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의 존재로 아동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언어와 사고의 성장에 중요하다(김영실, 1991). 또한 아동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룩된 언어 체계를 숙달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언어 공동체의 정신세계와 교섭한다는 데서 그 의의는 크다.

언어 발달에 있어 여러 학자들은 결정적 시기를 갖는다고 하였다. 몬테소리는 이 시기를 언어 민감기(sensitive period)라고 칭하여 교육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모국어나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 이시기의 언어 발달에 폭발적인 현상(explosive phenomenon)이 있으며, 이 시기에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언어 결함을 초래할것(고후순, 1983, 김영실, 1991 재인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간의 언어 발달, 지적발달, 사회성의 성숙, 여러 가지 동작기능의 발달도 지체상태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아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언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배열하는 가능성을 마련해 줌으로써 아동의 인지발달 가능성은 더욱 성장하게 된다. 아동의 학교학습, 가정학습 및 사회학습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게 됨을 생각해 볼 때 학령전 교육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체계적으로 작성·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영실, 1991).

Staats(1974)는 학습이론에서 언어발달을 지능과 동일하게 보고있는 점을 지적하며 언어 목록과 지능목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써 상호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도 아동의 언어능력이 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지능이 높은 아동은 언어능력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언어는 그들이 발전시킬 사회성·정서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아동이 다른 아동과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그들의 학습기회에도 영향을 주며,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맺을때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 나. 언어발달의 중요성

아동의 언어능력은 성숙과 교육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진된다. 아동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룩된 언어 체계를 받아들여 숙달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언어공동체의 정신세계와 교섭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 언어발달의 중요성은 언어발달 자체로서 뿐만 아니고 다른 발달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고 또한 받는다는 것이다. 이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이 언어기술을 가지게 됨에 따라 사회적 발달이 촉진된다. 가장 진보된 언어기술을 가진 어린이는 훌륭한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며 협동놀이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릴 때 익힌 언어습관은 평생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세심한 지도는 무엇

보다 중요하다. 보다 좋은 습관, 보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언어지도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셋째, 아동들이 언어기술을 갖게 될 때 정서적 발달이 촉진된다. 또한 아동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전체적인 정서적 분위기가 아동의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 발달과 아동의 개념체제는 언어발달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넷째, 단어는 단순한 소리나 기호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마음을 전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지도는 더욱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 아동들은 개념에 관한 학습을 하고, 이를 기초로 또 다른 개념을 학습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어지도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다섯째, 언어습득과정에 있어서 개인차를 좁히거나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언어지도는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인차로 인하여 또래집단에 어울리지 못하여 올바른 성장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언어지도에 있어서 개인차의 정도와 분야를 관심있게 살펴 지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발달이 잘 된 언어기술은 아동의 궁극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그에 기초한 감정들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자발적이고 활기찬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일곱번째, 아동의 언어는 음성언어인데 이 음성언어는 곧 문자언어로 연결되므로 올바른 음성 언어지도가 있다면 글자를 익히고 배우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경험하기와 말하기는 읽기와 쓰기를 위한 기초가 되며 그것이 경험으로 내면화 되었을 때 씌여지거나 인쇄된 상징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즉 청각적, 구두적으로 학습된 많은 개념들이 읽기와 쓰기의 참조체제로 이용되는 것이다.

여덟번째, 아동기에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표현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료·정보의미를 파악해 내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아동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동안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데, 기회를 많이 가져본 아동들 일수록 언어적 기술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주영희, 1983 재인용). 따라서 언어발달을 위한 아동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과 주변환경 그리고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준다고 할 수 있다.

#### 다.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에서 성(性)을 들 수 있다.

초기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연구에서 여아가 언어요인에서 남아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의 연구에서는 남녀 아동간에 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Strickland(1962)의 연구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문장이 약간 길었다고 하였으며 Nelson(1973)의 연구에 의하면 여아는 18개월에 남아는 22개월에 50개 어휘를 습득하였다고 한다(주영희, 1983 재인용).

두 번째 연령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언어소통 기능은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 질문유형과 부정문의 습득에서 신체적 성장

과 함께 사례적으로 발달하지만 그 구체적인 연령과 비율에는 개인차가 뒤따른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Piaget(1959)는 7-8세가 되어야 '왜냐하면(because)'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했다. 7-8세 이전의 아동도 '왜냐하면'을 말하지만 이 때는 유아가 자신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동의 언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의 내용, 형태 등 모든 면에서 발달된다(주영희, 1983 재인용)고 한다.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첫 번째로 사회·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회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그 중에서 직업, 교육, 경제력이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다.

아동이 속한 사회·경제적 위치와 학업 성취는 검사 점수와 상관을 의미있게 본 Lavatelli는 저소득층 아동의 점수가 낮은 원인을 학업 성취에의 욕망, 학습준비, 교육의 질, 언어능력 면에서의 부족이라고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언어능력 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두 번째 아동의 언어능력과 지능에 대한 문제는 관련이 깊다. 표준화된 지능검사에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측정하는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언어이해력이나 언어 능력이 지능검사의 하위검사를 이루고 있는 예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언어이해력이나 언어능력이 지능검사의 하위검사를 이루고 있는 예도 많이 발견된다(김재은, 1970). 언어를 이해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므로써 지능검사의 점수가 추가되는 것이다. Staats(1974)는 언어이론에서 언어발달을 지능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언어목록과 지능목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서 상호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주영희, 1983. 재인용). 또한 지능은 가정의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Bee는 빈곤, 노동계층과 풍부한 가정 계층의 아동간에 나타나는 IQ차는 3세부터 시작되며, 10~20점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연령에서도 남·녀 아동간에 IQ차이가 일관성있게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였다(주영희, 1983 재인용).

## 2. 언어 영재아의 특성

### 가. 언어 영재성

언어 영재성의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언어영재란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 창작과 작시에 매우 뛰어난 사람, 다른 언어를 획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드라마와 연기에 능한 사람, 단어 퍼즐을 즐기는 사람, 위의 것이나 어떤 능력이 보이는 사람을 칭하고 있다(박경숙외, 1997).

Michael(1958)은 쓰기와 말하기에서의 표현, 의미의 이해, 언어의 구조, 그리고 읽기/듣기/시청각 능력이 모두 고려되는 개념이 언어 영재성이라 하였다.

Gardner(1983)는 「마음의 틀」에서 언어 영재란 어휘의 소리, 리듬, 의미,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의 사람이며, 이러한 능력은 소설가, 시인, 언론인, 평론인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재능이라고 하였다.

언어적 재능이 무엇인가는 아직도 애매모호하다. 언어적 재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아동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환경과 자극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그 언어적 재능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더 쇠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에 따라 한 문화에서는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특징이 다른 문화에서는 무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능검사를 하여 언어적 지능이 높은 아동들이 언어적 재능이 있다고 보았으며, 심리측정적 접근 방법에서는 언어적 재능을 알려주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Redding(1989)은 언어적 지능이 높으면서 학습이 부진한 아동들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학습자료가 적절한 도전을 주지 못해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언어영재성은 몇가지 능력으로 구분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말하기 능력은 다른 언어 능력보다도 가장 쉽게 알아볼수 있는 능력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웅변가, 코메디언, 아나운서, 사회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재빠르게 말바꾸기, 복잡하고 리듬있는 패턴으로 쉽게 생각해 내서 표현하기 등으로 말의 내용을 상황과 대상에게 알맞게 구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번째 읽기 능력은 글을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능력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글을 읽었거나 수준 높은 책을 읽기도 하는 것이다.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외에 글의 중심주제를 파악하기, 내용을 분석하기, 비판하기, 중요도 평정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표준화검사를 통해서 읽기 수준을 확인하고 더 높은 학년의 읽기 지도를 해야하는 학생들을 판별해내는 것은 오래전 부터 해 온 것이다. 특정한 언어 영재들을 발굴해 내는 데는 부모, 교사의 관찰은 매우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창작능력을 보면 언어능력이 뛰어난 경우, 일관성 있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창작능력은 이런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어휘를 선택하는 데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아주 희귀한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하기,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현상이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표현하기, 있는 그대로 쓰기 보다는 비유 또는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창작대회나 백일장을 열어 창작품을 직접 평가하는 방법, 아동이 쓴 글을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글솜씨를 평가하게 하는 방법등이 적당하다.

네 번째 언어적 추론능력을 보면 이 능력은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낱말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언어로 표현된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며, 다양한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언어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능력이 우수한 아동들은 후에 각 분야에서 탐구하는 학자가 되거나 변호사, 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조석희외 1996).

## 나. 언어 영재성의 발달

영재성의 개발에 관계가 있는 요인들 중에서 영재와 그 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많으나 (Bloom, 1985; Feldman, 1991), 또 다른 연구들은 부모보다는 주변사람 즉 형제, 자매, 조부모 및 교사들의 사람들이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eldman(1991)은 신동들을 연구한 결과 신동들은 그들이 인정받는 영역에서 어려서부터 접촉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시킬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후의 원인(부모, 동료, 교사, 사사)으로 격려와 출판, 연기, 연주, 실기, 전시와 같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간에 힘든 일을 완수하려는 집착이나 인내심을 간직한 점도 신동의 필수 요인이라는 점도 기술하고 있다. 즉 가정, 학교, 훈련, 개인의 인성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언어 영재성이 출현하고 발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Van Tassel- Baska & Olszewski- Kubilius, 1989)

스펜더는 언어 영재성을 발달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초기 요소로 경험에 대해 생생한 기억을 갖는 것이라 하였다. 언어 영재성의 발달에는 몇가지 요인들이 관련되는데 인생의 초기에는 부모나 형제 및 지역사회 어른들의 관심이 있었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사가 있었다. 영재성이 발현된 영역을 사랑할 기회나 그 분야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경쟁의 기회가 주어졌고, 많은 시간 연습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무한한 연습이 영재성을 발달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박경숙, 오영주, 1997).

영재성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요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아동이 포함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요인과 그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화가 얼마나 자극을 주어 그들의 동기 발전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능력을 첫 번째로 발견하고 개발해 주는 입장을 지닌다. 또한 아동이 포함하고 있는 환경안에서 집중력을 만들어 주고,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교사 또한 중요하다. 이는 아동이 성장하는 발달 단계에 따라 유아기와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취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언어영재성 발달의 단계(Pirto, 199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령전 아동시절을 보면 언어영재아동들은 생활에 문학과 지적인 삶에 가치를 두는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자습을 격려하는 가족이 있었다.

두 번째 학령기 시절에는 비형식적 작품 창작을 하였고 여러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졌다. 다양한 어휘, 상상, 연극 등 상상능력을 격려받는 환경에서 살며 다양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청소년기, 성인 초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고, 그들의 습작품을 동료들이나 지성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반응에 자극을 받았다.

네 번째 성인기에는 성숙된 모습과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가지 장르에서 작가로서 위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이렇듯 언어영재아동들의 발달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환경안에서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짧은 습작이라도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한다는 것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 다. 언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언어능력은 인간의 사회 활동과 학문적 활동에서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중요한 능력이다. 교육자들은 영재아동들의 언어능력을 길러주고, 언어적 영재성을 발굴해 주며, 또한 그들의 영재성을 계발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은 또한 영재의 타고난 재능을 아동이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무엇으로 교육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영재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례연구와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총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듯이 언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도 영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되어 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영재아동들에게 적절한 속도, 적절한 내용, 적절한 스타일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능검사나 적성검사와 같은 검사 결과,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언어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는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말하기 교육

언어 영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영재청 소년센터(Center for Talented Youth: CTY)는 말하기, 읽기, 외국어, 창작, 언어를 사용한 일반적인 추론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단계(7-11세), 중등단계(11-14세)로 구분된다.

말하기의 초등단계에서는 어릴 때 많은 동시와 동요를 암기해 둔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리나 이유를 이해하면서 동시나 동요를 많이 암기하도록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암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소리에 민감한 어린 나이에 말하기 교육을 받게 되면 효과가 훨씬 클것으로 기대하며, 아이들이 어휘를 풍부하게 알면 알수록 자연적으로 더 뛰어나게 된다.

소련의 언어발달 심리학자인 Vygotsky(1962)는 아이의 말은 처음에는 어른의 말과 형태상 비슷하고 나중에는 의미상으로 비슷하게 발전해 간다고 하였다. 이는 어려서 시를 많이 암기해 두면 그들의 인생은 더 풍부하게 해 주는 자원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등단계에서는 암기와 더불어 말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유명한 연설문(윈스턴 처칠, 넬슨 만델라, 에이브러햄 링컨, 존 에프 케네디)등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

게 말하고, 연설자의 기법은 무엇이며 노린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초등단계 보다는 좀 더 긴 시들을 외우는 것이 필요하며 시들을 외울 때 언어가 어떤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가면서 외우면 언어적인 감각이 더 우수하게 발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암기, 암송, 토론, 5분 스피치, 연극 등을 하게 하여 각종 말하기 기법을 분석하고 활용하게 함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2) 읽기 교육

초등단계의 읽기 교육은 영재들의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깊이 있는 독서, 분석하는 독서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읽기 시간에 다루는 내용과는 다른 인상과, 혼돈이론, 공기압축 등과 같은 차원이 높은 주제가 더 적절하다.

언어적 재능이 있는 학생 뿐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전체 언어 접근법’(또는 하향적 접근법: Whole language approach)에 따라 읽기 교육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적절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려해주며, 능력수준이 비슷한 동질의 그룹에서 학습할 때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며 개별학습보다 집단학습을 중시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책읽기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습관을 일찍부터 길러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체 언어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몇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적절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즉 너무 쉽거나 어려운 책이 아닌 적절한 책을 선별해 주어 언어 영재들이 그들의 독서 수준의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언어 영재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개별적인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 전체 언어 접근법은 아동의 사회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학습보다는 집단 속에서의 학습을 중시한다(Vygotsky, 1978)

셋째,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책을 읽게 해 주어야 한다. 아이가 책을 읽은 다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렇듯 아동들은 읽고 쓰는 습관을 일찍부터 길러주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언어와 언어가 갖는 신비스러운 작용과 기능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고 즐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등단계에서는 세계적인 고전과 최고의 문학작품을 읽도록 지도하고, 글을 깊이 있게 분석할 기회를 주며 독후감을 쓰도록 요구하고 여러 친구들이 같은 책을 읽고 그 내용과 느낌을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다른 자기 점검을 하도록 한다. 작가가 어떤 상황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깊이있게 분석하면, 창작이 작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결정을 내려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즉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 분석적인 읽기는 습관이 되어 간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석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된다.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친구들이 같은 책을 읽고 내용과 느낌을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

### (3) 창작 교육

영재들은 언어능력, 상상력, 논리적 사고력을 얼마든지 신장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로서 주위 환경에서 제공되는 자극여하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글은 문법이나 받아쓰기 훈련만으로는 쓸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며 조리있고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한다면 창의적인 글쓰기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교사나 부모는 아이가 글을 잘 쓸 경우 더 도전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는 것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유도해 내는데 도움이 되며 많이 관찰하고 생각하게 해주어야 한다. 관찰한 것은 일단 말로 표현해 보게 한 다음 관찰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다음에 관찰할 때 세밀하게 관찰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매일의 일기를 그날 생각한 것, 관찰한 것, 보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꾸미는 것도 글쓰기를 일상 생활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글쓰기를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너무 많이 고쳐주지 않는 것이 좋다.

중등단계 아이들의 학습방법은 글을 써 본 경험이 있는 작가와 워샷을 진행하게 하여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평범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 글을 쓸 때는 글쓰기에 관하여 새로 알게된 개념과 기초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게 한다.

글쓰는 연습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스타일이 분명한 유명한 작가의 글의 일부분을 읽어주고 그 스타일, 목소리, 색깔 등을 학생들이 최대한 흉내내어 그 작가가 쓴 것과 가장 유사하게 그 다음 부분을 완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특정작품을 미리 읽어 와서 그 작품의 장점을 세가지 정도 짚지어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때 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이나 비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박경숙, 오영주.1997).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C 영재학술원에서 IQ 점수 130이상의 지능검사 결과와 그

들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 즉 습작이나 표현력, 사고력등을 조합하여 언어적 특성면에서 일반 영재아동보다 우수하다고 교사가 판별한 초등학교 1학년 8세 아동 3명(남자아동1, 여자아동 2)을 추천 받았다. 이들과 비교·연구하기 위해 대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일반아동 3명(남자아동 1, 여자아동 2)을 선정하였다. 연구상 지역적인 차이를 두지는 않았으나 대도시라는 상황이 동일하므로 서울과 대전을 선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1999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상 아동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심미적 질문과 글없는 이야기 책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추론능력의 질문을 하여 아동들이 답변하거나 구사하는 이야기를 녹음하였다.

## 2. 연구 도구

영재아동으로 판별된 아동들은 언어적 능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검사도구인 KEDI - WISC 지능검사 점수를 사용하였고, 교사의 판별과 추천을 이용하였다. 반면 일반아동들은 K - ABC 지능검사를 하여 그들의 인지처리 과정이나 습득도 하위 검사 점수에서 일반적인 문장해독이나 수수께끼 점수를 사용하여 일반아동들의 언어 특성을 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동화의 선정은 관련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하였고(연구자의 4명), 현실적 동화 2권, 비현실적 동화 2권을 선정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일반아동과 영재아동에게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줄거리를 시간적, 공간적 차원으로 기억해 내는 순차적 정보 회상 질문과 주인공과의 관계형성 및 사건 내용을 표현하여 사고해 낼 수 있는 심미적 질문을 하였다.

언어적 재능 확인 평가도구(Project Spectrum: Krechevsky, 1994)는 하버드 대학의 Project Zero팀이 1983년에서1994년에 걸쳐서 스펜서 재단, 록펠러 재단, 윌리엄 그램트 재단의 후원을 얻어서 개발한 작가적 수행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1점에서 3점으로 채점하였다. 작가적 재능은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있어서 이야기의 구조화 정도, 이야기 줄거리 전개 방식, 주제의 일관성과 논리성, 대화체의 사용, 시간적인 표현의 사용, 음향효과와 사용, 사용하는 어휘수준, 문장구조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이야기의 재인 및 상상을 통하여 언어적으로 심미적 표현등을 얼마나 구사하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가. 작가적 재능의 수행 평가 채점기준

(1) 이야기 구조화(nature of structure) 평가

내용 점수	이야기의 구조화(nature of structure) 정도를 평가
1점	대상의 행동이나 조작만을 기술하고 사건, 대상, 인물들을 표현한다 (예: 역할, 이름을 명명치 않고 대상관계를 규정치 않음).
2점	주어진 대상을 통해서 행동을 기술한다; 이름, 역할을 부여하며 주인공의 생각이나 동기를 포함시킨다.
3점	문제를 상정하여 스토리의 줄거리를 만들어 낸다(좋은 사람, 나쁜사람); 한두가지 주인공을 정해 둘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주인공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아동이 왕, 앤드류, 캐빈을 각기 다른 목소리와 어투로 표현함)

(2) 주제의 일관성, 논리성(thematic coherence)평가

내용 점수	주제의 일관성, 논리성(thematic coherence)평가
1점	한가지 생각으로 부터 다음 생각으로의 전이가 불분명하다; 주의가 흐트러지고 이야기의 흐름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2점	이야기의 줄거리가 계속되지만 잠깐 동안만 유지되며 일관성 없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일부를 잠시 동안 발전시킨다
3점	네 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사건들을 연결짓고 대단원을 설정한다.

(3) 이야기 줄거리의 전개(use of narrative voice)수준 평가

내용 점수	이야기의 구조화(nature of structure) 정도를 평가
1점	한가지 생각으로 부터 다음 생각으로의 전이가 불분명하다; 주의가 흐트러지고 이야기의 흐름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2점	이야기의 줄거리가 계속되지만 잠깐 동안만 유지되며 일관성 없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일부를 잠시 동안 발전시킨다.
3점	네 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사건들을 연결짓고 대단원을 설정한다.

(4) 대화체 사용(use of dialogue)정도와 수준 평가

내용 점수	대화체 사용(use of dialogue)정도와 수준을 평가
1점	이야기 속에 대화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만 사용한다
2점	이야기 속에 대화체를 사용하나 주인공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단순하다.
3점	이야기 속에 대화체를 사용한다. 주인공들 간의 대화가 의미있고 사고, 감정, 정보를 담고 있다. 여러 문장에 걸쳐서 대화체가 계속된다(인물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낸다).

(5) 시간적 표현의 사용(use of temporal markers)수준 평가

내용 점수	시간적 표현의 사용(use of temporal markers)수준 평가
1점	단순하고 접속사만을 사용해서 사건 간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낸다(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2점	시제를 좀 더 복잡하게 표현을 하며 사건간, 시간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논리적 접속사를 사용한다(~ 하기전에, ~한 후에, ~할때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사용한다(한밤중에, 그 다음날 아침등)
3점	'2'수준에 나타나 있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복잡한 수식어를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6) 표현력(expressiveness)평가:이 부분은 이야기를 보충하는 음향효과만 평가

내용 점수	표현력(expressiveness)평가
1점	이야기 속에서 강조를 전혀 하지 않거나 약간밖에 하지 않는다. 단조로운 목소리나 음향효과를 전혀 내지 않는다.
2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끔 음향효과를 섞거나 주인공에 따른 목소리, 강조, 노래등을 섞는다.
3점	음향효과를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사용하고 주인공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흉내내고, 표현이 풍부한 설명을 한다.

(7) 어휘수준(level of vocabulary) 평가

내용 점수	어휘수준(level of vocabulary) 평가
1점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고 형용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2점	'1'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지만 가끔 상세한 기술을 하거나 표현이 풍부한 언어를 사용한다. 형용사를 어느 정도 사용한다.
3점	다양한 어휘를 구사한다; 부사와 형용사를 사용하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섬세하게 기술을 하고 무드를 살리는 어휘를 사용한다.

(8) 문장의 구조(sentence structure)평가

내용 점수	문장의 구조(sentence structure)평가
1점	단순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평행적인 문장들을 주로 사용한다. 문장과 문장이 조각으로 나뉘어 진다.
2점	'1'수준의 문장을 사용하지만 전치사를 사용하거나 복합문을 사용한다.
3점	다양한 문장구조를 사용한다. 부사구, 형용사구 등을 사용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각각 3명씩 남자 2명(33.3%), 여자 4명(66.7%)이었다.

### 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사고능력

아동들에게 현실적 동화를 들려준 후, 동화의 내용을 기초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사고능력을 본 결과는 <표 1> 과 같다.

동화를 들려주고 정보회상 질문과 심미적 질문을 하였다.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아동이 단순하게 대답하는 반면 영재아동은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표 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현실적 사고능력

n= 6

	영재아동	일반아동
	M(SD)	M(SD)
이야기의 구조화	2.00( .00)	1.00( .00)
주제의 일관성, 논리성	2.83( .41)	1.83( .75)
이야기 줄거리 전개	2.33(1.03)	2.17( .41)
대화체 사용	1.00( .00)	1.00( .00)
시간적 표현	2.50( .55)	1.00( .00)
표현력 평가	1.00( .00)	1.17( .41)
어휘수준	3.00( .00)	1.33( .52)
문장의 구조	3.00( .00)	1.50( .55)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영재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어휘수준과 문장의 구조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주제의 일관성 및 논리성, 줄거리 전개에서도 일반아동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사고의 기억 및 언어구사에 사용하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언어적 능력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화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영재아동, 일반아동 모두 동일한 점수를 보인바 아직 타인에 대한 표현능력이나 기법에서 낮은 상태임을 추론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구자들이 언어적 능력을 풍부한 사회적 맥락속에서 평가하고자 문장이나 문법만을 검사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많은 교육 연구자들이 문장 수준의 구조보다는 담화 수준에 초점을 두어 언어 능력을 측정해야 개인이 언어 능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Snow, 1991).



## 〈사례 1〉

영재아동: 먼저 텍스터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랑을 했다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옥수수 밭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다시 친해져서 기뻐어요

일반아동: 응, 연기를 뿜어냈어. 그래서 친구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어.

## 〈사례 2〉

영재아동: 옛날에 드소토 선생님과 조수가 있었는데요, 여우를 보고 치료해 주려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치료해 주었는데, 여우는 그것을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고 새로운 금니로 다시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일반아동: 안 치료해줄려고 했는데 치료하려 들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를 뽑았어요 새이를 만들고 마지막에 입을 못벌리는 약을 먹었어요

심미적 질문을 한 후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응답내용에서 보듯이 영재아동은 어휘수준과 문장구조에서 일반아동보다 시간적 표현과 접속사 및 부사구, 형용사구를 사용하여 어휘의 섬세한 표현을 하였다. 일반아동은 줄거리 전개식의 이야기 구성으로 단순한 표현을 하는 정도이다. 정보회상식의 질문에서도 영재아동은 복합문과 많은 원인들을 문장으로 대답한 반면 일반아동은 단문과 단어식의 답을 하였다.

이렇듯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질문에 답변하며 구성하는 어휘능력 및 재인과정은 평균 점수에서 일반아동보다 영재아동이 점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비현실적 추론 사고능력

아동들에게 비현실적 동화를 들려준 후, 동화의 내용을 기초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추론 사고능력을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글없는 그림책을 보여준 후 아동의 이야기전개를 통해 심미적 질문을 한 결과 영재아동은 많은 어휘 및 문장의 구조를 정교하게 사용하였다. 일반아동도 현실적 동화를 보여주었을 때 문장과 어휘에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사례 1〉

영재아동: 황색물소와 회색물소가 숲속에서 거북이를 재미있게 해 주려고 했는데 거북이는 장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통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그것을 재주라고 생각하고 물소들이 멧돼지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중심도 잘잡고 그러는 것을 물소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르게 주려고요

일반아동: 동물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서 서커스 대 공원을 하는 것을 너무 못해서 부러

위 하였어요 서커스 대공원을 할 때는 거북이도 같이 했어요

<사례 2>

영재아동: 빨간끈이 계속해서 연결 되니까요 고양이 옷을 떠주는 거예요

좋았을꺼예요 아줌마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목도리를 짜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아동: 빨간끈이 집으로 돌아가서 털장갑, 털목둘이를 할머니가 뜨고 있어요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재아동은 이야기 구조화에서 다양한 어휘수준 및 문장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복합문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래도 비현실적 동화이기 때문에 일반아동도 단문사용보다 관계를 잇는 문장을 구성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영재아동에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 표현과 대화체 사용은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들이 구어체식의 대화 및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습관에서 오는 현상이라 추론할 수 있다.

<표 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비현실적 추론 사고능력

n= 6

	영재아동	일반아동
	M(SD)	M(SD)
이야기의 구조화	2.00( .00)	1.33( .27)
주제의 일관성, 논리성	3.00( .00)	2.17( .57)
이야기 줄거리 전개	2.33( .57)	2.00( .40)
대화체 사용	1.83( .57)	1.17( .17)
시간적 표현	2.50( .30)	1.50( .70)
표현력 평가	1.17( .17)	1.17( .17)
어휘수준	3.00( .00)	1.83( .57)
문장의 구조	3.00( .00)	2.00( .40)

비현실적 동화의 경우 글없는 그림책을 사용하였는데 위의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주제의 일관성 및 논리성, 어휘수준, 문장의 구조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낼 수 있었다. 시간적 표현에서도 현실적 동화와는 달리 영재아동이 접속사를 사용하며 이

야기할때 시간적 차원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문장의 길이에서도 볼수 있듯이 다양한 부사구 및 형용사구를 사용하였으며 관계형성을 사건 및 대상에 따라 달리 표현하고 있었다.

언어발달 과정은 모든 아동들에게 해당되지만 언어수준에는 많은 개인차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인이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언어적 능력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Gardner, 1983).

그러나 일반아동들도 현실적 동화를 들려 주었을 때 보다는 비현실적 글없는 그림책을 보여 주었을 때 이야기의 즐거리를 전개하며, 문장의 구조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동화의 종류에 따라 아동들의 사고능력을 확장시킬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작가적 재능 수행평가를 한 결과 영재아동이 어휘수준과 문장 구조 및 주제의 일관성, 논리성에서 일반아동 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또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즐거리 전개 및 이야기 구조화 등에서도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Fox & Durden(1982)은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경우, 일관성 있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창작능력에서는 언어영재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희귀한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하거나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아동이 즐거리를 혼합해 가며 이야기를 한 반면 영재아동은 기억회상을 하며 이야기를 할 때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한 언어적 특성을 나타낸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게 현실적 동화와 비현실적 동화를 들려주어 심미적 질문과 정보회상 질문을 한 결과 영재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확산적 사고를 보여 주었으며, 이야기 즐거리 전개에서도 일반아동이 단순한 문장 형식의 응답을 한 반면 영재아동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표현력을 갖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화체 사용 및 시간 표현력에서는 영재아동, 일반아동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구어체식 언어습관 때문이라 사료된다.

Gardner(1983)는 『마음의 틀』에서 언어 영재란 어휘의 소리, 리듬, 의미, 그리고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능력은 소설가, 시인, 언론인, 평론인에게서 보여지는 재능이라고 하였다. 결국 언어적 특성은 어려서부터 민감한 언어에의 반응 및 사고, 그리고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과정에서 길러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지능도 우수하고, 다양한 사고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영재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부모 및 교사는 단순한 기초사고 기능의 언어보다는 고급 언어와 고급화한 질문을 해 주므로써 그들의 능력이 더욱 발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언어형성 및 표현방식에 있어 다양한 언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특히 어른을 모방하면서 형성되어지는 언어습관은 아동의 학습능력 및 과제 수행에 있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때문에 부모 및 교사는 영재아동이나 일반아동 모두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 및 사고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영재아동 3명과 일반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더 많이 선정하여 언어영재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실(1991). 유치원 어린이의 언어지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0). 유아지능검사, 행동과학연구소.
- 박경숙·오영주(1997). 언어 영재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숙, 현주, 박효정, 이재분(1992). KEDI 집단지능검사 개발연구(Ⅰ) - 검사제작편.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우(1998). 총체적 언어. 창지사.
- 조석희·한순미(1986). 취학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개발원.
- 조석희·박경숙외 (199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1995). 내 아이 타고난 영재성 100% 키워주기, 조선일보사.
- 주영희(1983).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언어 및 사고능력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loom, B., (Ed)(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 *Ballantine Books*.
- Bloomley, K.(1988). *Language arts*. Boston, MA; Allyn and Bacon.
- Feldman, D.H(1991). *Nature's gambit*.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Fox, L. H. & Durden, W, G.(1982). *Educating verbally gifted youth* Bloomington. IL:

-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Krechevsky, M. (1994). *Project Spectrum: Preschool assessment handbook*. MA: Presodemt amd Fellows of Harvard College.
- Michael, L. S. (1958). Secondary- school programs. In N. B. Henry(Ed). *Education for the gifted. 57th Yearbook*. Park II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PP. 263 - 31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aget. J.,(1959). *The Language And The Though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Piirto, J.(1992).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Dayton, Oh: Ohio Psychology Press.
- Redding, R. E.(1989). Underachievement in the verbally gifted: Implications for pedagogy. *Psychology in the Schools*. 26, 275- 288
- Staats, A. W.,(1974). Behaviorism and Cognitive Theory In The Study of Language : A Neopsycholinguistics, In Richard L. Schidffelbusch are Lule L. Lloyd(eds). *Language Perspectives; Acquisition, Retardation, And Intervention*, Baltimore; University Press, PP.615 - 646.
- Van Tassel - Baska, J.(1987). Language, literacy, and television: A caes for - teaching Latin to the verbally talented. *Roeper Review*, 9(3), 159 - 161.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The Linguistic Properties Comparison between nongifted children and Gifted children

These purposes are to have a necessity to be educated for the linguistic gifted among many gifted in speedy changable age, and to find out what differences are of properties between the linguistic gifted children and nongifted children through comparing/analysing to gifted children any nongifted children using performance evaluation on writer's ability. Therefore, it intends to use as a assisting material in order to develope ability and properties of the linguistic gifted children and nongifted children as well.

The studying details are 1) to compare/analyze thinking ability between the linguistic gifted children and nongifted children 2) to find out differences of thinking ability for unrealistic reasoning between the linguistic gifted children and nongifted children.

The studying subjects had been chosen 3 children as a first grade in 'C' Gifted Academy and 3 children as a first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from June 3, 1999 to June 12, 1999. The studying instrument was an evaluation of linguistic properties certification(Project Spectrum : Krechevsky,'1994). It had got a frequency calculation,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hrough the material anylzing with the program SPSSWIN.

The conclusions are as belows,

First, as a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on writer's ability to gifted children and nongifted children, the gifted children were outstandingly shown the linguistic ability getting much higher score than nongifted children in respect of vocabulary level, structure of writing, and consistency/logicality of theme.

Second, it was shown the gifted children had diffusing thought than nongifted children through the esthetic question and information memories with listening to the realistic juvenil story and the unrealistic juvenile story.